

교육실습 소감문

실습 학교	실습 기간	실습 과목	실습 대상
서울잠신중학교	4월4일(월)-4월29일(금)	수학	중학교 1학년

1주차. 예비교사로의 시작 그리고 학생들과의 첫 만남

아직은 쌀쌀하던 4월 초,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교육실습을 위해 바로 집 앞 5분 거리에 있지만 오랜 기간 찾아가보지 못했던 모교로 발걸음을 향했다.



국공립학교라서 나를 지도해주셨던 선생님들은 지금은 한 분도 남아계시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추억들이 새겨진 미술실의 낡은 책상마저 변함없이 그대로인 모교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다.

나를 포함하여 총 9명의 예비교사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서 4명은 모교출신이고, 나머지 인원은 협력학교(한양대학교) 혹은 인근 중학교출신이었다. 서로 어색했지만 친해지기 위해 바쁜 교육실습 첫 주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첫 이틀간은 기초교육과정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석교사님 그리고 여러 부장 선생님들의 수업으로 실습이 이루어졌고, 아직 만나지 못한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과 서로 간에 지켜야할 규범들을 배웠다.

날짜	4월 4일(월)		4월 5일(화)	
시간	지도 내용	담당	지도 내용	담당
1교시	실습계획과 주의사항 안내	연구장학부장	수업연구의 방향과 자세	수석교사
2교시	학교경영 및 교직의 보람	교장	진로교육	진로진학부장
			정보 및 과학교육, 과학의 달 행사	정보과학부장
3교시	학교운영의 실제	교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교육과정부장
			학생상담 및 관리	상담복지부장
4교시	교무운영	교무운영부장	학생진학지도	3학년부장
5교시	학생 생활지도의 이해	생활인권부장	창의체험활동	창의체험부장
6교시	학급 담임업무의 이해	학습지원부장	체육과 안전	체육안전부장
7교시			수업참관	교과지도 교사
방과 후	교과 및 담임 협의회	각 과목 담당 교사 연구장학부장	수업참관	교과지도 교사
			수석교사 협의회	수석교사

교육실습 소감문

예비교사 실습과정은 중학교 1학년에만 배정되었으며, 이는 현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 실시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한 지역 특성상 중학교 2, 3학년은 내신에 민감한 학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대비 과정을 예비교사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에서 학부모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다. 부담이 적어졌지만 한편으론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지도해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많았다. 보통 한 학급당 인원수가 서울지역이 평균 27명이라고 하지만, 잠실중학교를 포함하여 인근에 위치한 잠실중학교, 신천중학교는 한 학급당 인원수가 평균 38명으로, 서울지역 중 가장 많은 학급인원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서보다 더 할 일이 많아져서 힘들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거의 없어서 오히려 편한 부분도 많다고 하셨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충사항도 들어보니 항상 좋은 상황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날부터 아침 8:00-8:25에 교문지도를 서면서 여러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바로 이어진 조례시간에 학급담임반 학생들과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하였고, 어색했지만 수줍은 미소로 나를 반겨준 학생들에게 고마웠다. 학급지도교사와 교과지도교사가 각각 다른 분으로 배정되어서 실제 수업을 실습하는 반과 학급담임반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학급담임반 학생들과의 한 달간의 짧은 만남을 생각하니 다소 아쉬웠다.

수업참관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교과지도교사님이 담당과목뿐만 아니라 타과목 수업도 많이 들어보라고 하셔서 이후에 시간이 나면 틈틈이 과학, 국어, 영어, 도덕, 기술, 가정, 사회, 역사 등등 여러 과목에서 다양한 자료와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다. 특히 학창시절 재미있게 공부했었던 역사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배우고 이후에는 자연계 입시와 관련된 과목만 배워서 늘 아쉬움이 많았는데, 직접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보니 더 재밌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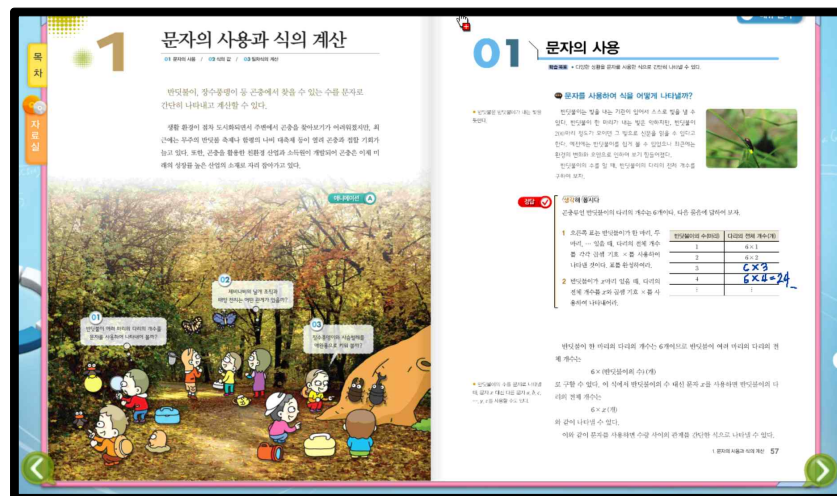
2주차. 실제 수업의 시작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첫 번째 날부터는 학급지도교사님의 도움으로 조례와 종례를 직접 실시하게 되었으며, 조례시간에 담임반 학생들과 짧지만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여러 가지 글도 같이 읽으며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아침 스트레칭운동도 같이 하였다. 물론 종례는 전달사항만 공지한 후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끝냈다. 학생들이 나중에 종례가 짧아서 좋았다는 말을 많이 하여서 사소할 수 있는 것 하나에도 나에게 고마움으로 표현해준 아이들에게 내심 고마웠다.

교과지도교사님의 도움으로 담당과목을 수업하게 되었는데, 수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오고, 또한 교과서 내용이 쉽다보니 조금만 속도를 천천히 늦춰도 학생들이 금방 지루해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루한 수학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교과서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조별 활동과, 발표 그리고 적절히 단원과 관련된

교육실습 소감문

ebs-math 동영상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대학에서 배웠던 수업모형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딱딱한 수학이 아닌, 흥미와 협동심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하였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수학 과목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진행하는 수업모델과 이상적인 수업모델 사이의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수업모형의 개발과 활동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많은 수학선생님들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수업모형을 적용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느낄 수 있었다. 교과지도교사님께서 수학 수업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다를 수가 없고, 학원 등에서 다루는 교과지도 영역이 학교보다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무라는 말씀을 하셔서 깊이 새겨들게 되었다.



교문지도와 학급지도, 그리고 수업참관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선생님들께 표현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데 소극적이다. 아마 표현하기 서투르거나 어색해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질문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말도 잘 안하고, 인사도 어설프게 하던 학생들이, 조금씩 횟수가 늘고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학생들이 나를 향해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도 먼저 하고, 나중에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도 하였다. 옆에 지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도 인사를 안 하는 학생들이 나에게 밝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민망하여 학생들에게 지나가시는 선생님들께도 인사를 꼭 하라고 얘기하였지만, 한편으론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우선 교사가 가져야 할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수요일(13일) 선거일로 휴식을 가졌고, 목요일에 “과학의 달 행사”로 2-4교시가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과학 실험도 하고, 직접 과학 물품을 제작하여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덕분에 질서를 유지시키느라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었다.

바로 이어지는 금요일에는 6-7교시에 동아리 활동이 이어졌으며, 교과지도교사님을 따

교육실습 소감문

라 “바리스타” 교실에 참여하였다. 외부 강사님을 초빙하여 진행하였는데, 사진을 찍고 있던 나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료를 조금씩 모아 카페라떼와 뉴욕핫도그를 직접 만들어서 주어서 너무 고맙았다. 예전 나의 학창시절에 비해 지금 모교에서는 매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와 아닌 많은 내용들을 지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2주차가 지나갔다.

3주차. 학습지도안 작성 그리고 마지막 교과수업

학습지도안 약안 3차시를 2주차에 교과지도교사님께 제출하였고, 3주차 목요일에는 학습지도안 세안 3차시 분량을 교과지도교사님, 수석교사님께 제출하는 날이었다. 나를 포함한 예비교사 9명은 모두 수업준비와 더불어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는데 정신없이 보냈다. 교과지도교사님의 통과를 받고, 수석교사님과 학습지도안에 대해 면담을 하였는데, 대학에서 받아볼 수 없었던 세심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후배교사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지도해주시며, 국어담당 선생님이셨지만 학창시절 재밌게 배웠던 과목 중 하나가 수학이라고 하시며 본인이 학창시절 수학공부를 하면서 느끼셨던 생각을 말씀해주셨고, 동료교사들의 수업지도안 중 가장 잘 만들어진 수업지도안도 프린트해 주셨다. 또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팁과 지도과정을 알려주시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할애하시며 진심을 다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수석교사님께 존경심마저 들었다. 특히 마지막에 “선생님은 꼭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수학과 학습 지도안(세안) - (2/3차시)

지도교사	수석교사	연구장학부장	교감

일 시 : 2016년 4월 12일(화요일) 2교시
장소/대상 : 1학년 7반 (39명)
지도 교명 : 김중훈 (임)

1. 단원명
가. 단원명 : 1. 문자와 식
나. 종속명 : 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다. 소속명 : 01. 문자의 사용 (2/3차시)

2. 단원 설정의 이유(단원의 개관)
문자와 기호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문자와 기호는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수학에서 약속을 보면 $2+3=5$ 등의 기호가 있고, 컴퓨터의 자료에서 Ctrl, Enter 등의 문자와 기호가 있다. 또한 아니라 일기 예보, 교통 표지판, 지도 등과 같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자와 기호에 대하여 미리 접해진 약속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 수 없으므로 일기 예보, 교통 표지판, 지도 등에 달겨진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학에서도 문자와 기호를 접해진 약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찾을 수 있는 수를 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내는 몇 가지 규칙을 통해 특정한 것 문자나 식을 간단한 문자와 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3. 단원 학습 목표
가. **지식(변(변적)적 영역)** : 수학 사이의 관계를 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히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안다.
나. **태도(변(변적)적 영역)** : 문자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세를 지닌다.
다. **기능(변(변적)적 영역)** : 문자를 사용한 식을 이용하여서 식의 일반성을 찾고, 많은 관계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찰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과 학습 지도안(세안) - (2/3차시)

4. 학습 계획(총 3차시, 1시간을 45분으로)

단원(주제)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학습 자료	배당 시간
01. 문자의 사용	1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내기	교과서, ppt, 동영상	45분
01. 문자의 사용	2	같은 기호와 다른 기호의 생각	교과서, ppt, 동영상	45분
02. 식의 값	3	문자에 수를 대입하여 식의 값을 구하기	교과서, ppt, 동영상	45분

5. 지도상의 유의점
1) 다양한 상황을 이용하여 문자의 필요성을 알도록 지도한다.
2) 일차식의 계산은 하나의 문자에 대한 일차식만 다룬다.

6. 본시의 학습 계획
가. 본시의 학습 목표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나. 지도 과정

과정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학습 형태 및 자료	시간 (분)
		학생	교사		
도입	수업 준비	교과서, ppt	교과서, ppt	교과서, ppt	1분
	단원 소개	단원 소개	단원 소개	교과서, ppt	3분
	단원 소개	단원 소개	단원 소개	교과서, ppt	3분
	단원 소개	단원 소개	단원 소개	교과서, ppt	3분
본시	단원 소개	단원 소개	단원 소개	교과서, ppt	3분
	단원 소개	단원 소개	단원 소개	교과서, ppt	3분

어느덧 마지막 교과지도수업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가왔다. 수업을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은 매우 짧았지만, 잠깐이라도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교육실습 소감문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좋았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한편으로 많은 생각과 걱정을 안고 사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니 지난 학창시절의 나와 친구들을 떠올리며 잠시 추억에 잠기는 시간도 있었다. 이제 다시 수업으로 만나지 못하겠지만 부족했던 내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목요일(21일) 방과 후에는 교직원 직무연수교육이 있었는데, 예비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나를 포함하여 3명의 예비교사들도 참여하였다. 주제는 “동료교사와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주어진 학습지를 동료교사들과 협의하여 더 개선된 학습지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였고,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 저녁 6시에 마무리된, 다소 긴 시간의 연수였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저녁까지 학교에 남으셔서 교육을 받으시며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더 나은 가르침을 드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다.

4주차. 자유학기제와 예비교사로의 마무리

월요일(25일) 개교기념일에 이어서 화요일부터는 중학교 2, 3학년의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었다. 예비교사들의 학급담임반은 중학교 1학년이어서 자유학기제에 따라 진로체험 활동을 시작하였다. 진로콘서트(화), 진로체험학습활동(수), 진로뮤지컬(목)을 차례대로 진행하였으며, 예비교사들은 중학교 1학년이 진로체험학습활동으로 학교 외부 활동을 하는 날에 중학교 2, 3학년 시험 감독 보조역할을 하였다.

시험 감독은 선생님 한 분과 학부모 한 분이 한 학급에 배정되며, 철저히 선생님의 통제에 따랐다. 한 학급에 배정되었을 때 선생님 한 분의 도움으로 시험시간에 시험 감독의 역할과 실제 시험 감독을 직접 해볼 수 있었고, 학생 감독 및 답안지 확인방법 등 다양한 팁을 알려주셨다. 시험 감독 중간에 한 여학생의 사물함에서 핸드폰 알람이 울렸는데,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점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하셨다. 원칙적으로 핸드폰은 담임선생님께 시험 직전 제출해야 되지만, 사물함에 있는 핸드폰이 부정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는 듯 했다.

중학교 1학년들의 진로콘서트와 진로뮤지컬이 있는 날에는 체육관에 모두모여 다 같이 관람하였다. 외부 강사님과 대학로 연극단원들이 찾아와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기 쉽고 재밌게 풀어서 강의 또는 연극의 형태로 보여주셨고, 학생들은 열렬히 환호하고, 웃고 즐기는 것 같았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잠시나마 공부라는 일상에서 벗어나 즐겁게 웃고 떠드는 중학교 1학년들을 보니 문득 어린 시절 나의 모습과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많은 것이 하나하나 변했다는 게 느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오늘날 모교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

교육실습 소감문

였다.

교육실습 마지막 날에는 학급담임반 학생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아이들과의 이별을 준비한다는 말에 여자 예비교사들은 울먹이기도 하였지만, 학급담임반 학생들과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렇게 싫지만도 않았다. 생각했던 마음만큼 많은 것을 준비할 수가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과 간식들을 사서, 학급담임교사님의 배려로 1교시 학급담임 교과수업시간에 수업이 아닌 작별의 시간을 가졌고,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웠다. 아이들이 전해준 편지들에는 아주 작지만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고마움으로 표현해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모습에 학생들에게 비춰졌을 지난 내 모습들을 반성해보기도 하였다.



교육실습을 마치며,

교육실습기간은 내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학창시절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도 없이,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수학을 특히 좋아했던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나에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선택할 수 없었다. 주변 지인들의 시선에 밀려, 그리고 막연하게 보고 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화려한 삶을 꿈꾸며 좁은 문틈을 뚫고 의대에 진학하여 장학금까지 받고 다녔지만, 의대를 다니며 실제 의사들의 삶을 보고 들으며 막연했던 환상들이 깨지고, 인체 해부 실습을 해도, 병원실습을 해도 왜 평생 이 업무를 하며 살아가야하며 스스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과 회의감이 많았었다. 앞으로 남은

교육실습 소감문

나의 삶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남들보다 늦은 나이지만 아버지의 모교에 재입학하게 되어 원하던 수학교육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진로를 바꾸고 난 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힘들었던 군복무 중에도 훈련이 없는 날에는 틈틈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선·후임들을 가르치며 복무기간동안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실습은 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확신들을 준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많은 업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보게 되었고, 학생들 또한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왔는지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결코 어리고 어리숙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시기 학생들의 인생에 올바른 잣대와 가르침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자라나는 학생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니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숭고함마저 들었다.

비록 짧은 교육실습기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수줍은 듯 장난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나와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싶어 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